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자면 예전부터 원 노릇을 하다가 욕심이 너무 많고 남의 거를 너무 많이 갈취를 했기 때문에 구렁이가 돼 가지고 거기서 내내 있다가 나중에 개심을 하고 천 년을 거기서 이슬을 먹고 이파리만 따 먹고 그러고 산 거야. 그런데 남을 해치지 않고 천 년을 채우려면 사흘 남았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랬으니 그 동네 일판이 다 그렇게 된 건 그렇게 된 거지만 군인들이 몇백 명이, 아니 그때 몇백 명보다도, 숫자는 다 모르겠어요. 사단이 몇이라니까, 아주.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현상을 보고 이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겪어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의식이 욕심이나 아집이나 탐심, 남을 탓하는 투기,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가랑잎과 같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인간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저런 나뭇가지보다도 못한 때가 많아요. 가을이 돼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그 가지는 벌벌 떨면서도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금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말입니다, 그 한 철 살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로 한 철 살기 위해서 남을 얼마나도 해칩니까? 꼭 해친다고 해서 해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그렇게 해쳐집니다. 거짓말 한 번 하다 보면 그걸 속이기 위해서 백 번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세생생을 끄달려야만 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묵은 빚을 갚을 것도 못 갚고 자기 육을 낳아 준 부모까지도 해를 입고 자식까지도 해를 입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십시오. 우리가 밥을 얻어먹고 돈벌이를 해서 살 양으로 머릴 깎고 이 중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하루 한 끼니 두 끼니 아무거로라도 배 채우면 살 것을 왜 구태여 그렇게 해서 삽니까. 부처님의 이름을 속이고 부처님의 뼈다귀를 팔아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여기 와도 부처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체 조사들의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그 아리따운 마음을 꿰뚫어서 내 마음과 둘이 아닌 마음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베풀라는 거지.

아까 얘기해 드린 거요, 오신통이라는 그 불바퀴 속에서 정신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공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천문학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심리학과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과학자의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천체물리학자의 논문도 나올 수 있어. 의학의 논문도 나오고, 모두 전체예요.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니 이것만 터득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거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나이를 먹었으면 자식들 한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건 없지만 불가사의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해서 쓸 수 있다면, 앞으로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점차적으로 기도 약해지고 자꾸 병도 잦아지고 그럴 시기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보죠. 왜? 자기 있는 것만 다 쓰고 있는 힘을 다 들여서 정신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배우는 것도 너무 그냥 어지럽게 과목을 두고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기가 빠지죠. 기가 없어지면 기를 자꾸 넣어 가면서 써야 될 텐데 기를 넣을 줄을 모른다면, 꼭 차에 기름 넣을 줄 모르듯이 그렇게 된다면 차가 굴러갑니까?

지구도 유지하려면 타의에서 그 모든 것을, 광력이나 전력, 자력을 또 끌어들여서 그 모두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둘이 아닐 때에 바로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개시할 수가 있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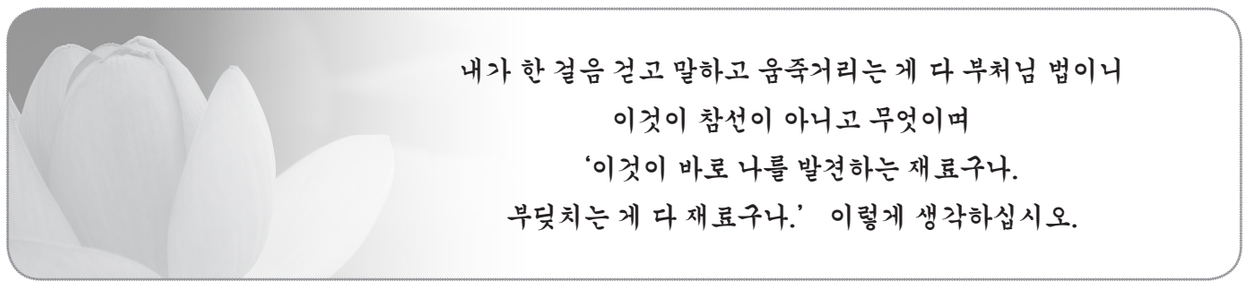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물 한 그릇에다가 저 물 한 그릇, 바다가 물 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더러운 거든 깨끗한 거든 거기다 다 부어 보십시오, 두드러지나. 콩 한 알갱이에다가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 전부를 넣는다 하더라도, 부처님 세계를 다 넣는다 하더라도 그릇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이렇게 샘물 나오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공, 그 주인공 안의 안테나가 바로 샘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와 같은 겁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그 수도꼭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 수도꼭지는 자연적으로 그대로 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도꼭지다 아니다 할 거 없이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퍼 먹고 주고 싶으면 퍼 주고 이러는 거지 여기 수도꼭지를 꼭 쥐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죠.

알고 보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아는 척하고 처음부터 "이거면 족하지." 처음부터 "이것이 없다는데 뭘 쥘 게 있어?" 아주 그냥 시험도 안 해 보고 자기가 지혜도 넓히지 못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항상 그러는데, 여기 와서 절을 하는 것이 누구한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어서, 무르익어서, 고개가 숙어져 두루 자기 나무에서 자기 실과가 무르익어서 만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요소, 또 씨앗이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절을 시키는 거지 누가 절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얼마나 귀찮은 줄 아십니까, 그것도? 내가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렇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냥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중략)

여러분, 한 철 살기에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고 어떠한 교를 가지고 있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경계하지 말고, 적어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짐가짐을 갖고 언제나 항상 말조심하고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 생각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업보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추측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다면 그건 업보가 큽니다.

그러니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생각하십시오, 각자. 남이 칼로 찔러 죽인다, "너 이놈! 오늘 저녁에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더라도 허허 하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탓 안 하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있으니까 찔러 죽이러 온다지, 내가 없다면 찔러 죽일 게 뭐 있어서 오겠나.' 하고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칼도 들지 못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처님 법이고 내가 부처님 법을 행하고 있고 내 가정이 다 살아나가는 게 부처님 법 아니고 무엇인가. 내가 한 걸음 걷고 말하고 움죽거리는 게 다 부처님 법이니 이것이 참선이 아니고 무엇이며 '이것이 바로 나를 발견하는 재료구나. 부딪치는 게 다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월 팔일이 닥치는데, 꼭 사월 팔일 날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항상 내가 있을 때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열반했다 죽는다 산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죽는 걸 열반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달해서 여여함을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살아 계시면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도리를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지금 오하이오 주 주립대학에서는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따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다 보니까 논문을 쓸 때 거기서 다 나옵디다." 하고요. 그러니까 애를 쓰지 않고 논문을 써도 아주 슬기롭게 으뜸으로 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요. 거기는 생물학자니 누구니 누구니 다 여러 사람들이 아주 고르게 있더군요. 그런데 나는 참 놀란 것이 있죠. 예전에 거기에 가서 설법을 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야, 이 속에서 당신네들은 다 논문을 쓸 수 있고 현실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구나. 이 속에서 다 나가는 것인데 뭐가 어려울 게 있겠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계시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계시니 우리는 둘이 아니게 모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도반들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얕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앉아 있으면 그냥 도반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기에는 너무 좀 무식한 듯하고 못생긴 듯하지만 못생겼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마음 하나는 진정하다는 것을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만나면 서로 웃고 이렇게 서로 벗이 돼서 얘기하고 이러고 또 헤어지고 그럽시다.

여기 젊은 스님네들이 말은 잘 못합니다만 몇 해를 그래도 마음공부를 했으니 여러분이 정히 괴로울 때 "스님, 난 이러이러합니다." 할 때 저 스님네들이 말은 여러분한테 약장사처럼 잘 못해도 "알았습니다." 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실히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들 하십시오. 스님네들이 그렇게 심부름을 해 줄 동안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법문은 그치고, 내가 엊그저께 말입니다, 문득 저 창문을 내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하나 생각난 것도 허튼 생각은 아닙니다.

어젯밤에 눈 오더니
날이 밝아 동이 트니
가지마다 백 송이 피고
뿌리마다 이어 가니
천상 저 높은 산 위에는
하얀 눈이 덮이고
골짜기마다 칡뿌리 이어 가고
칡꽃이 만발했으니
길을 걷던 나그네의
대피리 소리는 온 누리에
님의 계심 전달하니
만 꽃이여!
님의 소식 들었는가 하노라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4월 8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30TH BTN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BTN불교TV를 향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즌3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금 08:30 재 금 19:30 / 토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다여스님의 땅설법
본 월 13:00 재 월 22:30 / 토 19:30



고인사이드 글로벌
본 수 07:30 재 수 20:30 / 토 08: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